

‘전주 한지가 지화꽃을 만나다’

지화장 도홍 김완섭 지화꽃 전시회 17~26일 도청 1층 전시실서 진행

“전주의 한지로 지화꽃을 만들었어요. 꽃밭 정이(전북도청)에 오셔서 꽃길 한번 걸어 보세요?”



도홍섭님

침향 잎목에 핀 꽃으로 침향의 향기와 꽃내음을 느껴 보면서 코로 나를 이겨내자. 환상적인 지화꽃의 49가지 4,900송이 꽃길에서 만나자. 태고종 전북교구 안에는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존회가 있다. 이곳에는 범패와 작법, 그리고 지화 3위 일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화란 불단에 부처님 전에 한지로 종이를 짠다 만들어 화공양을 올린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영산작법 보존회는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일간 전주 도청 1층 기획 전시실에서 ‘전주 한지가 지화꽃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4천여 송이 지화꽃을 선보

인다. 지화장 도홍 김완섭의 지화전은 전주의 한지로 만든 종이꽃을 5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한지에 자연 색 재료를 이용해 자연채색을 하고 망치로 꽃 칼을 때려 종이를 두들겨 꽃 모양을 만들어 내는 전통 수작업이다.

한 송이 꽃을 만들기 위해 산에서 원료를 가져와 49일간 말리고 건조 시켜 적절한 온도로 6시간 이상 끓여서 7가지 색상을 만들어 내어 종이에 자연채색을 한다.

또한, 한 송이 꽃을 만들기 위해 (국화꽃) 10가지 크기 27가지 모양을 27번의 망치로 두들겨 꽃 모양을 만드는 10가지이니 270번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다.

대나무 살에 식자 칼로 잘라 20cm 되는 대나무를 칼로 잘라 찢가라의 3분의 1 두께로 만들어 내는데 100번의 칼질해서 만든다.

즉, 국화꽃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 천 번의 망치질과 칼질로 정성을 쏟아야 한 송

이 지화 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는 3월 17일 김완섭 도홍섭님의 손길로 빛이난 그 정성의 아름다운 꽃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회에 방문해 심상의 경화를 느껴 보자.

한편, 김완섭 도홍섭님은 1964년 전주에서 출생, 현재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부원장, 김제 성덕사 주지(종덕)를 맡고있다.

1977년 지화장 청암화상 은사로 유발득도 후 지화장업 공부후 1980년 삼보정사에서 사발련의 수계.

은사 청암 문하에서 전통 방식의 지화장업전문수 받아 43년동안 전통의 한지로 지화 전문.

1999년 김제 만경강 인근 부설거사의 탄생터에서 (성덕사) 만경 해질녘의 황금 햇살의 곡창지대 만경 들녘에서 오로지 전주한지로 전통채색해 지화의 맥을 이어 가고 있다.

2018년 영산작법 이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후계자 양성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유호상 기자

‘화석전시관 실내놀이 체험시설’ 명칭 공모

익산시, 지역 거주 시민 대상 18일까지 이메일 접수

익산시가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화석전시관 실내놀이 체험시설’의 명칭을 공모한다.

시는 화석전시관이 오는 6월 실내놀이 체험 시설로 변환해 운영됨에 따라 이에 맞는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령 제한 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화석전시관 실내놀이 체험시설’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친근감 있는 명칭을 공모한다.

응모는 오는 18일까지며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에서 공모 제안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석박물관 담당자 이메일

(hyacinth@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단 1인 1점만 응모 가능하다.

한편 화석전시관은 지난 2002년 개관해 화석과 공룡조형물로 구성됐으며 20여년간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해부터는 왕궁 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스카이트레일, 트램폴린 점프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레이저 테그, 실내 클라이밍 등을 구성해 오는 4~6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말 개관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영상으로 만나는 온택트 공연 ‘코믹 졸탄쇼’

19일~6월 27일까지 매일 4회 전주 한해랑 아트홀서 공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진정한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줄 졸탄쇼가 시작된다.

극단 한해랑에서 주최하고 기획한 2021년 온택트 공연인 ‘코믹 졸탄쇼’가 전주에 온다.

3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 4시, 6시, 8시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온택트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 언택트 생활에 오늘날을 통한 전시회 및 공연 등을 즐기는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이 공연은 tvN코미디빅리그, SBS 웃찾사의 흥행을 이끌었던 개그맨 이재형, 한현민, 정진욱이 출연해 진정한 웃음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전주 한해랑 아트홀 소극장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졸탄쇼 공연을 영상으로 관람하면 된다.

티켓 가격은 10,000원이지만 평일, 주말 상관없이 50% 할인 적용해서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극단 한해랑(1644-435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4년 연속 선정

‘봄, 여름, 가을, 겨울 -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주제로 전시 진행

전주대 박물관(관장 김진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대학박물관Ⅱ’라는 주제로 박물관이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전시·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100여 개 대학박물관 중 20개 대학이 선정됐다.

전주대 박물관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적인 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대 의학의 도입과 발전과정 및 전염병 극복 사례 등과 관련한 답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했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전염병 극복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퇴치와 일상적인 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박물관은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및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도내 초·중·고 학생과 문화적 소외계층, 특수학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민화·인장



전주대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등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문화재청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신규 사업자 공정한 기회 보장 위해

문화재청이 고도보존 육성·주민지원과 관련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공포한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 육성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

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